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19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시민참여팀장 • 담당자	공 석 조영희	☎440-2416 ☎440-24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출근시간 M6410노선에 이달 중 전세버스 3대 투입
- 19일,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시민들께 직접 설명 -
- 내년 대광위 광역급행노선 수요조사 시 논현-강남간 노선 신설방안 강구 할 것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논현동 M6410버스 대안노선 신설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에 대해 시민들을 찾아가 직접 답변했다.

해당 의견을 게시한 시민 20여 명과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유정복 시장은 “교통망 확충은 인천에 있어 가장 절실한 숙원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천의 큰 방향” 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논현동에서 강남과 사당을 갈 수 있는 신규노선과 M6410버스의 노선 조정 요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라며 시민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유 시장은 “그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마련했고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고 밝히며 “이 달 안에 출근시간 때 M6410노선에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버스 투입 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세버스 추가 투입 수요를 파악하고 운행횟수 증회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2023년 대광위의 광역급행노선 수요조사 시 논현과 강남간 보완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풀어야 할 문제, 대광위와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반드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민의견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석금지를 강화하면서 논현동 M6410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월곶 경유 등에 따라 서울 출퇴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M6410버스의 노선 변경 및 논현-강남행 신규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에 대해 30일간 3천 66명의 시민이 공감해 답변이 이뤄졌다.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한 다수 시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오프라인 현장소통을 통합해 민선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http://cool.incheon.go.kr/>)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0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답변원고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22.10.19.)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유정복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3천여 분의 시민께서 공감하신

‘M6410 버스 노선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를 위한

핵심과제로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주민 여러분의 정주 여건 개선이고, 그 핵심은 교통입니다.

지난 12일 시민과 함께한 애인 토론회에서도

민선 8기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으로 ‘교통’을 손꼽았습니다.

그만큼 교통망 확충은 인천에 있어 가장 절실한 숙원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천의 큰 방향입니다.

지난 2014년 시장으로 출마하며 했던 1호 공약이

인천발 KTX였던 이유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적을 재현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논현동에서 곧바로 강남과 사당을 갈 수 있는 신규노선과 M6410버스의 노선 조정에 대하여 우리 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취입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마련하였고,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인천과 서울, 경기 수도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정규버스 증차 노력과 전세버스 투입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달 안에 시흥시와 함께 출근시간 때에 M6410노선에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추가 투입 수요를 파악하고, 운행횟수 증회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논현동과 같이 적극적인 인프라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M6410버스의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승객의 불편과 월곳을 미경유하더라도 현재 노선과 비교한 결과 시간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 고잔톨게이트로의 진입 시 현재 기점과 논현동 내 정류소 순서 변경이 필요하나 기존 이용시민의 불편과 운수업체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로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시는
2023년 대광위의 광역급행노선 수요조사 시
논현과 강남간 보완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여러분께서 인천과 뜻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해 주실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와 풀어야 할 문제, 대광위와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하나씩 풀어간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주민을 넘어선 정치와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여러분과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천을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